

조선시대 시가를 통해 본 장애에 관한 인식

김태옥*

I. 서론

지난 여름방학부터 얼마 전 11월 말까지 학교는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탈바꿈하였다. 이른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회관부터 경영대까지의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가로등을 현대적으로 설치하며 자하연 주변을 미화하는 등의 사업이었다. 개강과 함께 정리된 교정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바람과는 달리 개강 이후까지 늦어진 공사 탓에 시끄러운 소음과 차량의 먼지 등 온갖 문제들이 학우들을 짜증나게 했다. 그렇지만 학교가 몰라보게 변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외관상으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된 듯하다. 그러나 과연 걷고 싶은 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걷고 싶은’ 즉, 멀쩡히 걸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갖추어진 학우들이다. 공사기간 중 장애학우를 배려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이 하나도 없었고 공사가 끝난 지금도 인문대 자하연을 지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거리의 이름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당하며 배제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근대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 근대에 들어 와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확산되었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으며 인간 존엄성이 지켜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산업혁명 초기와 비교하여 노동시간의 단축 및 노동법의 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과정 4년

정을 보다 진전된 근대화의 예로 들기도 하고, 여성주의 운동이 가져온 여성의 권리 신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렇다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 장애학우들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것,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둘러싼 그들의 외로운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근대화가 덜 진행된 결과로 봐야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는 아직 ‘근대의 그늘’에 위치해 있는 것이며, 이는 조만간 해결될 성질의 것일까?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9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조차 법률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에, 전통시대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이 일상사처럼 회자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데, 전통시대 장애인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더 척박하고 고단했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문학작품 중 장애인을 소재로 한 시가 및 장애를 가진 시인의 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전통시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함께 장애인 스스로가 가졌던 의식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은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관점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장애’란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WTO 국제장애분류시안」에 따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불리(handicap)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손상이 의료적 모델에 따른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장애를 의미한다면, 불능은 일상 활동에서의 장애를, 불리는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차별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장애의 개념화는 손상

이라는 생의학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다.¹⁾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와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1980년대 초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하고, 근대 이후에는 주로 ‘불구자’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통시대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특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고, 그들을 지칭하는 말 또한 존재했다. 우선 기록상으로 폐질자(廢疾者), 잔질자(殘疾者), 독질자(篤疾者)라 하는 말이 있다. 이는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사(己巳)에 개경의 남녀 가운데 80세 이상인 자와 중환자, 폐질자에게 술과 음식, 차, 피륙 등을 내리되 차등 있게 하였다.²⁾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망기(農忙期)를 만났으니, 농사에 힘써야 될 긴장한 남녀에게는 모두 환곡을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잔질, 폐질 및 빌어먹는 자에게만은 진제(賑濟)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³⁾

이렇게 전통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폐질(자), 잔질(자), 독질(자)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문어(文語)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문학적 교양을 지니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일반 서민 사이에 통용된 용어라고는 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상층의 식자들이 쓴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가장 대중적인 언어는 ‘병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본래 한자어 ‘病身’에서 온 말로서, ‘병든 몸’ 혹은 ‘아픈 몸’

1) 정근식,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문화비판으로서의 장애의 사회사」, 『당대비평』 14, 2001 참조.

2) 『고려사』, 현종 13년 9월조.

3) 『세종실록』, 5년 2월 4일조.

4) 나정희, 「중세 한국의 장애인 정책 연구—고려시대 폐질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참조. 정창권, 「조선조 시각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19세기 조선의 생활문화』, 돌베개, 2005 참조.

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원래의 의미에는 가치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 말은 ‘신체장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이 개입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⁵⁾

폐질자, 잔질자, 독질자와 마찬가지로 병신이라는 말 역시 인간의 ‘몸’과 관련된 말이다. 그러나 ‘성치 못한 사람’이라는 뜻의 앞의 용어들과는 달리 병신이라는 단어는 특히 몸을 중심으로 정상과 비정상, 주체와 타자, 우열, 강약, 동화(同化)와 이화(異化)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병신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 억압의 시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시선으로서의 병신이라는 용어가 굳어진 것이 역설적이게도 조선 후기 민중의 힘이 상승하던 시기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장애를 다룬 개별 문학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III.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 나타난 장애인관

전통시대 두 눈을 실명한 사람은 기록상으로 ‘눈멀 맹(盲)’ 자를 써서 맹인(盲人)이라 하거나 ‘소경 고(瞽)’ 자를 써서 고자(瞽者)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소경, 봉사, 맹인, 판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는데, 판소리 <심청가>나 <춘향가>에 이러한 호칭이 나온 것으로 보아 최소한 조선 후기에는 그러한 말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조정에서는 이들 시각장애인을 대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여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점복(占卜), 독경(讀經), 관현악, 구걸 같은 다양한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한편, 폭넓은 사회활동을 펼치거나 심지어는 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⁶⁾ 이들에게 직업을 주어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

5)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참고.

6)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참고.

가가 장려했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시대 청각·언어 장애인으로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문헌 기록상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 룡(聾)’ 자를 써서 농자(聾者), 농병(聾病)이라 하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어리 아(啞)’ 자를 써서 아자(啞者)라 하였다. 조선시대 시각 장애인에게 직업을 갖게 하여 보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국가가 지원했다고 하였는데, 청각·언어 등 그 밖의 장애인들 역시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때 역시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의 범주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여도 농자(聾者)는 못 듣나니
 백일(白日)이 중천(中天)하여도 고자(瞽者)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聾瞽) 같지 말지니?⁷⁾
 <후6곡 제2수>

여기서 ‘뇌정’과 ‘백일’은 진리, 곧 도(道)를 지칭하는 것이고, ‘농자’와 ‘고자’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자, 곧 ‘속세의 일에만 연연하여 인간의 참된 도리를 망각한 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반드시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인간의 참된 도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고루하고 혼미하여 딱 막혔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흔히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빗대어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7) 임형택·고미숙 엮음,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 비평사, 1997, 106~107면.

전근대시기의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불교, 유교, 도가의 영향을 두루 받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유교는 조선사회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였고, 사상적으로도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은 유교 가운데서도 주자학이었다. 퇴계 이황 스스로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조선의 주자학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주자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와 함께 주자학적 장애관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자학은 무릇 인간 일반이 하늘의 이치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이로 인해 누구든지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보편적 인간학을 지향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통치자와 피치자를 엄격히 구분 지으면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했다. 점에서 실제로는 차등적 인간학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자학이 그 사회적 작용의 맥락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독특한 차등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자학이 기초하고 있는 이른바 ‘이기론(理氣論)’이라는 존재론에서 말미암는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理)는 기(氣)라는 형질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理)와는 달리 기(氣)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의 차등적 면모가 마음에 발현됨은 물론 몸으로도 육화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에 대한 주자학의 차등적 시선이 드러난다. 주자학에서는 온전한 몸이 온전치 못한 몸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며, 이 존재론적 우월은 도덕적 우월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자학적 전통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도덕적·존재론적으로 열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상과 비정상, 혹은 우열의 범주가 가려지는 것이다.⁸⁾

다시 앞의 이황의 시조로 돌아가 보면 이는 성치 못한 몸을 지닌 사람은 성한 몸을 지닌 사람보다 인격적·도덕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성치 못한 몸을

8)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참고.

지닌 사람은 마음이나 학문적 성과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도덕적 규범의 출발을 수신(修身)에 두며, 수신을 통해 다듬어진 예(禮)를 강조한다. 이 때 수신의 대상으로서의 몸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것이다. 즉 내면의 덕과 예가 몸으로 표현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사람됨에 있어서의 문제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퇴계 이황의 시조를 통해서 당시 사대부들은 인간 평가의 기준으로서 몸을 강조했고, 이는 장애에 관한 부정적 시선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반드시 주자학의 관점에서만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편견의 형성에 주자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IV. <노처녀가(老處女歌)>에 나타난 장애에 관한 시선

전통시대 여성 장애인인 남성 장애인과는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남성들은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러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애초부터 결혼을 시키지 않곤 하였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인 여성이라는 성차별과 함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난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 여성가사 중의 하나인 <노처녀가(老處女歌)>는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고난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작가와 연대가 미상인 작품으로, 당시 여성 장애인이 겪는 결혼 문제가 특히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우선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은 엷고 귀는 멀고 눈은 한쪽만 있으며 왼손과 왼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복합 장애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내 얼굴 엷다 마소. (...) 한 편 눈이 멀었으나 한 편 눈은 밝아 있네. (...)
귀먹었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하여

무엇할꼬(...) 왼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턱 아래 검은 혹은 추어 부면 귀격이고, 목이 비록 움쳤으나 만져 보면 없을손가.⁹⁾

이런 장애를 가졌기에 그녀는 나이 40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였다. 부모님은 큰 딸을 19세에 시집보냈고 셋째 딸도 스무 살에 혼인시켰지만, 정작 둘째 딸인 그녀는 나이 오십 줄이 되도록 혼인을 시켜주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시집살이가 어떠한지 남편과 함께 하는 경혼생활의 재미가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내 본시 둘째 딸로 쓸데없다 하려니와, 내 나이를 헤어보니 50줄에 들었구나. 먼저는 우리 형님 19세에 시집가고, 셋째의 아우 녀는 20세에 서방 맞아 태평으로 지내는데, 불쌍한 이내 몸은 어찌 그리 이러하고, 어느덧 늙어지고 측은하게 되었구나. 시집이 어떠한지 서방 맛이 어떠한지, 생각하면 싱숭생숭 쓴지 단지 내 몰라라.¹⁰⁾

하지만 그녀가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얼굴이야 단장하면 그만이고, 행실은 『효행록(孝行錄)』과 『열녀전(烈女傳)』을 무수히 읽었기 때문에 출가해서 시부모 봉양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살림하는 재주도 뛰어나다고 했는데, 어떤 옷이든 지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이든 잘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 화자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해 비판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맞는 서방을 자기만 맞이하지 못하니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른인 체하자니 아직도 어린애처럼 머리를 땅고 있고, 부인이라 하자니 여전히 귀밑머리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9)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10)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25~27면.

긴 한숨, 자른 한숨, 먹는 것도 귀찮고 입는 것도 귀찮다. 어른인 체하자 하니 머리 땀은 어른 없고, 부인이라 하자 하니 귀밑머리 그저 있네.¹¹⁾

이런 신세를 생각하니 그녀는 한편으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또 혼인은 시켜주지 않은 채 불쌍하다 동정만 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 신세를 어이할꼬. 살고 싶은 뜻이 없네. 간수 먹고 죽자 한들 목이 쓰러 어찌 먹고, 비상 먹고 죽자 한들 목이 쓰러 어찌 먹고, (...) 곤충도 짝이 있고 금수도 자웅 있고 현 질신도 짝이 있어, 음양의 배합법을 낸들 아니 모를쏜가. 부모님도 보기 싫고 형님도 보기 싫고 아우 년도 보기 싫다. 날다려 이른 말이 불쌍하다 하는 소리 더구나 듣기 싫고 눈물만 솟아나네.¹²⁾

이내 그녀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기로 다짐한다. 부모 형제를 믿고 기다리다가는 서방을 맞을 일이 묘연하니, 자신이 직접 중매쟁이를 불러다가 억지로라도 짝을 맺어달라고 부탁할 셈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없던 웃음이 절로 나면서,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한다.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 할쏜가. 부모 동생 민다가는 서방맞이 묘연하다. 오늘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중매파를 불러다가 억지로라도 구혼하면 어찌 아니 못 될쏜가. 이처럼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¹³⁾

그리고는 자기에게 맞는 천정배필이 누구인지 시험 삼아 점을 쳐 본다.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건넌마을 김도령과 뒷골목에 사는 권수재의 이름을 써서, 점통에 집어넣고 높이 들어 흔든 다음 점괘 하나를 빼어보니, 김도령이 첫 번째로 뽑혔다.

얼씨구 좋을시구 이 아니 무던하나, 평생 소원 이뤘구나. 옳다 옳다 내 이제는 큰소리를 하여보자. 형님 불워 쓸데없고, 아우 년 저만 것이 내게 어이

11) 같은 책.

12) 같은 책.

13) 같은 책.

승을 보랴. 큰기침 절로 나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¹⁴⁾

급기야 그녀의 의식은 현실 논리를 벗어나 비약으로 치닫는다. 꿈 속에서 평생토록 그리던 김도령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다. 그 혼인잔치의 모습은 대강 이러하다.

앞뜰에 차일 치고 뒤뜰에 숙수 앓고, 화문방석 만화방석 안팎 없이 포설하고, 일가권속 가득 모이니, 가화 꽃은 다담상이 이리저리 오락가락, 형님이며 이주머니며 아우 년 조카붙이, 긴 담장 자른 담장 거룩하게 모였으니, 일기는 화창하고 향내는 촉비한다.¹⁵⁾

그런데 김도령과 막 첫날밤을 치를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니, 그저 이불 속의 한갓 꿈일 뿐이었다. 이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아깝고 아까울사, 이내 꿈 아까울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그 모양 그 거동을 어찌 다시 하여보리.¹⁶⁾

작품 결말부에서 그녀는 결국 김도령과 혼인하여 온갖 장애에서 벗어나고 쌍둥이 옥동자를 순산하여 부귀공명을 누린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단지 행복하게 끝맺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된 결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이처럼 <노처녀가(老處女歌)>는 중증의 여성 장애인일지라도 그 생각은 일반인과 똑같지만, 그녀를 둘러싼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노처녀가(老處女歌)>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혼재해 있다. 하나는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 즉 그녀의 부모·형제·친척 등 가족의 시선이요, 다른 하나는 장애인 자신의 시선이다. 가족들은 주인공인 나를 불쌍하고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또한 연민과 동정의 시선 속에

14) 같은 책.

15) 같은 책.

16) 같은 책.

17)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참고.

철저하게 가두어진 그녀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라 여긴다. 물론 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측은지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연민과 동정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을 ‘타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은 자기가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품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주변 인물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소리에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된다. 그러나 <노처녀가(老處女歌)>는 장애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한계와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며 그것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장애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에 여성은 47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굴레에 갇혀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과정에서 장애 여성의 문제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V. 장애에 관한 장애인의 시선

- 이이엄(而已廣) 장혼(張混)의 시를 중심으로

장혼(張混, 1759~1828)은 자(字)가 원일(元一), 호(號)가 이이엄(而已廣)으로, 위향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 출신의 중인인 우벽(友璧)의 아들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다. 여섯 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탓으로 한 쪽 다리를 절록거리며 서울 거리를 다녔다고 한다. 장지연이 지은 『일사유사(逸士遺事)』에는 그에 관한 행적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장혼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중후하고 속으로 명석하였기 때문에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지나칠까 염려되어 서당에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어머니 곽(郭)씨는 경서와 사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시험 삼아 그에게 책을 주어보

니 막힘없이 훤히 깨달았으며 한번 눈에 지나친 것은 곧 줄줄 외워 버렸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사부(四部)의 책에 널리 통하였으며, 시에 더욱 뛰어나 시를 한번 지어내면 사람들이 앞 다투어 서로 전해가며 외울 정도였다. 정조 대왕 때 감인소를 세웠는데, 장차 어정(御定: 국왕이 편찬의 방향을 잡아준 것)의 서적을 찍고 반포할 곳이었다. 책을 비교하여 바로잡고 교정할 인재를 구하는데, 순암 오재순 공(公)이 그를 천거하여 수장으로 삼고 군의에 천거하여 다른 것과 바른 것, 와전된 것을 살피게 하니 대나무를 쪼개 듯 빠르게 해치웠다. 관과 각의 여러 공(公)들이 추천하여 허락하지 않는 자가 없어 일을 모두 오로지 그에게 맡겼다. 매양 한 가지를 마치고 나면 살 집을 주는 예가 있었으나, 그는 살지 않겠다고 사양하며 말하기를 “작은 녹봉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나, 영화로운 승진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옥류동 계곡의 골짜기는 깊고 멀어 항상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가난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계곡의 동쪽에 집 한쪽을 빌려 이르길, ‘이이암’이라 하였다. 송석원 시사(詩社)의 많은 벗들과 더불어 봄·가을에 술을 마시며 시가를 읊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변함없이 하였다. 이로부터 위항문학의 빼어남이 생겨나, 이에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 그들을 좇아 따르려는 자들이 거의 천 명에 가까웠다.¹⁸⁾

장훈은 아동교육에 유별난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도 훈장 노릇을 하면서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듯하다. 그는 아동 교과서로 『계몽편(啓蒙篇)』을 비롯하여 『아희원람(兒戲原覽)』, 『몽유편(蒙諭篇)』 등을 직접 지어 가르쳤다. 『계몽편(啓蒙篇)』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上有天下有地)”로 시작하여 하늘의 별자리, 땅의 산천초목 등 인간 생활의 실제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다른 교과서는 사자 성구나 ‘경중(輕重)’과 같이 대비되는 글자를 단계에 따라 배우도록 편집하였다.

장훈이 지은 교과서가 나오자 그야말로 대중적 관심이 폭발해 장기적인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특히 『계몽편(啓蒙篇)』은 1913년 근대 활자로 간행된

18) 混自幼重厚內明，慮其過於聰慧，不令就學，母郭氏解書史，試授之書，犁然透悟，一過目輒誦。甫成童，博通四部書，尤長於詩，題詠一出，爭相傳誦。正廟時，設監印所，將印頒御定書籍，求讎校之才，醇菴吳公，首以薦，付軍衛，考異正訛，如破竹，館閣諸公，莫不惟許，事皆專委。每竣一役，例有陞資之典，輒讓不居曰，“微祿爲供親也，榮進非所欲也。”玉流洞溪壑幽邃，恒有誅茅之意，而貧不能，遂於溪東借一屋扁曰，“而已”，與同社諸友，修禊於松石園，春秋鯨詠，歲以爲常。於是委巷俊秀，感發從遊者殆近千人。 장지연, 『일사유사』.

뒤 20여 년 동안 10여 차례나 간행되어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압도하였다. 정약용이 일찍이 한자는 쉬운 글자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또 대비되는 글자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장흔이 이를 그대로 실행한 셈이었다.¹⁹⁾

그는 또한 천수경(千壽慶)이 위향문인들의 시사(詩社)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맹주로 활동할 때부터 주요 멤버로 활약하면서, 1797년 『풍요속선(風謠續選)』을 편집, 간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18세기 동안 활약했던 위향시인 333명의 시 723수가 수록되어 있다. 1818년 천수경이 죽은 뒤 송석원시사는 장흔과 조수삼 등이 이끌었다. 이들이 인왕산 옥류천 아래 송석원에서 백전(白戰)이라는 시회를 열면 전국에서 1천여 명이 넘는 시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²⁰⁾

백전은 대개 봄·가을의 좋은 날을 잡아 일정을 약속한 후, 그 사실을 문통, 즉 편지를 통해 전국의 시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송석원에 모여드는 시인들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남쪽과 북쪽에 각기 다른 그날의 시제가 올랐다. 이들 중인시인들이 지은 시는 이름난 양반 문장가에게 심사를 받았다. 거기에 모아진 작품의 수준은, 비록 양반이 지은 것은 아니나 어지간한 사대부들의 문장이 부끄러워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또한 양반의 신분일지라도 백전의 심사를 받는 것은 문장가로서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백전에는 중인 출신 문장가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 평민과 노비, 여성 문사들까지도 참여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이 행사를 백전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허안 백지를 펼쳐놓고 싸운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백전은 단순한 백일장이 아니었다. 학문을 닦아도 벼슬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백전은 신분적 한계에 도전하는 문장을 통한 ‘의병전’이었을 것이다.²¹⁾

19)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6 -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든다』, 한길사, 2003 참고.

20) 같은 책.

21) KBS TV 조선왕조실록 제작팀 지음, 『조선은 양반의 나라가 아니요』, 가람기획,

요컨대 조선 후기의 이러한 집단적 문예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중인들은 현실의 불만과 부조리를 문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동용 교과서가 출판되고 중인들의 문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대사조와 맞물려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을 일으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정조의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실용성을 경시한 전통적 윤리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향유되던 문화 독점에 대한 저항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인출신 절름발이 시인 장훈이 위치해 있다.

장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미 지적했듯, 그가 중인 출신 문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장애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다. 철저한 위계적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중인 출신이라는 점은 커다란 사회적 장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훈은 신체적 장애와 함께 사회적 장애 또한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장애는 분명 시인의 인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그는 자신의 중인 신분과 절름발이 신세를 교묘하게 배합하여 자호를 ‘이이엄(而已)’이라 하였다. ‘이이(而已)’는 보조 역할을 하는 글자이고, ‘엄(广)’은 암(庵)의 반자를 따서 쓴 것이다.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뜻이다.

그는 20세에 처음 훈장이 되어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쳤으나 얼마 못 가 비방에 시달렸다. 가끔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탓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계도 어려웠다. 그의 작품 <술빈시(述貧詩)>에 따르면 “목이 마르면 맹물을 마시고, 주리면 구기자나 국화잎을 따서 배를 채웠다.”고 한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생활이 어려워 소금이나 젓갈로 음식의 간을 맞출 수 없었고, 추위와 더위에 옷도 제대로 맞춰 입지 못하였다. 어린아이들은 늘 밥을 달라고 졸라대는 지경이었다.

김중수가 영의정에 올랐을 때 장훈의 딸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는지 첩으로 들어갔는지의 구체적 사실은 <술빈시(述貧詩)>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김중수의 추

천으로 잠시 교서관의 사준(司準)이라는 하찮은 벼슬자리를 얻어 녹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벼슬은 천직이 아니었는지 정조가 죽은 뒤 다시 낙백의 삶이 이어졌다. 그는 이 무렵의 가난을 이렇게 읊었다.²²⁾

우러러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리.
원망하면 하늘도 꾸짖을 테니.
아래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리.
허물하면 남도 원망할 테니.
하늘이나 남을 허물할 바 없으니
어찌 가벼이 욕을 하며 더럽히리오.

仰亦不怨天 怨天天譴督
俯亦不尤人 尤人人怨讟
天人無所咎 何況輕嫚嬮²³⁾

이 시는 중인 출신이기에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함께 절름발이 장애인으로서의 인생, 그에 따른 가난 등 시인 자신을 둘러싼 고난과 역경에 대해 달관의 경지를 보이면서 소신대로 살겠노라고 노래하고 있다. 장훈이 속했던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문인들 중에는 당시 양반사회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대문장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신분사회의 높은 벽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관과 원망에 젖지 않고 달관의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시인의 상실감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장훈이 같은 중인 출신 문사들과 함께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를 결성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자신을 둘러싼 장애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훈은 “박혁(博奕)의 사꺠은 하루를 가지 못하고 주색(酒色)의 사꺠은 한 달을 가지 못하고 세리(勢利)의 사꺠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오로지 문학

22)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6 -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참고.

23) 김달진, 『한국한시 2 - 조선중기~근대』, 민음사, 1991.

(文學)의 사꺠만이 영원한 것²⁴⁾이라고 하여 우정에 근거한 문학의 사꺠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시사 활동은 다분히 풍류와 유흥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왕산 깊은 자락에 위치한 옥계라는 계곡가에 모여 시회를 가졌는데 이때마다 시를 짓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었으며, 만약 시를 짓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벼운 벌이 따르기도 했다. 이들의 시회 모습을 그려놓은 화첩인 『옥계아집첩(玉溪雅集帖)』 속에 있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살펴 보면 마치 산수를 즐기며 노니는 한량들의 모습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자연을 즐기며 자족(自足)하는 모습은 장흔의 시문 도처에서 발견된다.

담모퉁이에서 아내는 절구질하고
 나무 아래서 아이는 책을 읽는다.
 사는 곳 잃어버릴 근심 없으니
 바로 이곳이 내 집이라네.

籬角妻春粟 樹根兒讀書
 不愁迷處所 卽此是吾廬²⁵⁾

한편 장흔은 여타의 사대부 시인들의 시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의 시[異體詩]를 즐기기도 하였다. 육언시(六言詩)나 모시집구(毛詩集句) 등이 그러한 것인데, 특히 사언시(四言詩)에 힘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의 시는 당대인의 눈에 새롭게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장흔의 새로운 형식의 시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아! 어떤 한 사람,
 장가들지 않고 벼슬하지 않네.
 고생하고 가난해도
 마음은 편안하네.
 거리낌 없이 즐기며

24) 장흔이 송석원시사 이전의 옥계시사(玉溪詩社) 활동 때 썼던 『옥계사(玉溪社)』 서문에 쓰임.

25)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참고.

음악과 시로 시간을 보내네.
 사물은 제각기 즐기며 살아가는 법,
 봉새는 메추라기를 비웃지 않는다.

羌有人兮 不娶不官
 雖則苦貧 其心則晏
 樂之嘍嘍 彈詠以間
 物各自適 鵬無笑鶉²⁶⁾

이 시에서 화자는 ‘고생스럽고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거리낌 없이 즐기며 음악과 시로 시간을 보내네.’라며 고난을 헤쳐 나가는 자신만의 해법을 찾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마음은 편안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물은 제각기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새’로 비유되는 양반 사대부이자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라고 할 수 있는 절름발이 중인 작가인 자신을 비웃지 말 것을 당부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장훈의 시를 가리켜 혹자는 그의 사고에서 이상적 삶이란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생활이며, 타인의 삶이나 사회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평가기도 한다. 그의 시는 사회현실에 눈 감고 도시 속에서 유한(有閑)한 삶을 즐기면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의 시 대부분이 시사의 동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사실에 주목하여, 이런 내용의 시가 쓰여지고 수용되는 것이 시사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아, 옥계시사와 송석원시사의 의식을 장훈이 대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²⁷⁾

그러나 본고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서 장훈의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신분적 제약이라는 사회적 장애와 절름발이라는 신체적 장애는 장훈에게 있어 이중의 스티그마(stigma, 汚點)로 작용했을 것이다. 스티그마는 보통 오점 또는 불신의 징표라는 의미인데,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를 오염된 사회적 정체성

26) 같은 책.

27)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참고.

으로 보았다. 고프만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첫 모습만으로도 그의 범주와 속성, 즉 그의 ‘사회적 정체’를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정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범주 중에서 덜 바람직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아주 불량스럽거나 위험하거나 하는 등, 그 사람이 제 삼자와 뚜렷이 구분될 만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이 특히 오명의 효과가 광범할 경우 오점이 되고, 우리는 이를 간혹 결점, 단점 혹은 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⁸⁾

어떠한 신체적 특징과 성격 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또한 오점의 보유 여부, 혹은 잠재오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오명의 기준들이 자이분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가진 몸의 외양과 운동을 타인들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사람은 오점의 낙인을 내면화하여 이른바 ‘손상된’ 자아 정체성 속으로 통합시킨다. 고프만의 오점이론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관점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반영(反影)을 제시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몸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오점을 가진 개인은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다룬 두 작품 <노 처녀가>와 퇴계의 시조에서 우리는 전통사회에도 역시 장애인에 관한 여러 차원의 부정적 시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장훈에게 있어서 자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자기 정체성의 구현이었

28) 어빙 고프만, 김용환 옮김, 『오점』,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참고.

고, 혹자들이 폐쇄적이라 평가했던 바로 그 시사 활동을 통해 오히려 당대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당시 양반들이 풍류를 읊었던 시들이 대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반면, 장흔의 풍류의 대상과 소재는 인왕산 옥계 근처에 소박한 초옥을 짓고 주변의 풍광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사실 중인들은 양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던 문화를 곁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송석원시사의 중인들은 결코 양반문화의 아류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검소하고 질박한 문화를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물론 송석원시사의 일부 시인들이 당시의 양반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시대 백성들의 삶과 애환을 예리한 시각으로 포착하고, 중인계층이었기에 가능했던 세태를 고발하는 시편을 다수 창작했다는 사실은, 장흔이 이들에 비하여 사회현실에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이엄 장흔은 시를 통해 자신이 가진 신분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적 태도로 그것을 긍정하면서 중인계급 문인들과의 시사 활동을 통해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전통시대 장애를 실제로 겪었던 인물이 장애라는 사회적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 그것을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그동안 장애를 둘러싼 담론은 주로 사회 복지학이나 사회학의 전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실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인문학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장애에 관한 사회적 시선은 그것을 지칭하는 어휘부터 시작하여 속담, 관용구,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용어와 시선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취급했는지, 또한 장애를 가진 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실히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정책과 태도는 오늘날과 달랐다. 장애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가 진전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통사회에서 장애인도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전통사회 장애인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정부 또한 징세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각종 제도로 구휼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통사회 장애인들은 오늘날의 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사회적으로 열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는 전통과 근대라는 인위적인 단절을 만들고, 철저히 근대적인 관점에 입각해 전통사회를 멋대로 재단하려 들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스티그마의 유형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고프만이 지적했듯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소외와 배제, 억압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주자학적 이기철학에 따른 결과이든 불교적 업(業)의 논리이든 혹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상품성만을 최고로 여기는 논리이든 간에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타자화의 대상이자 배척의 대상이었다. 얼마 전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딸더듬 장애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상관없이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처녀가(老處女歌)>와 이이엄 장흔의 시가 속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그러한 편견을 깨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발견했고, 장애인 스스로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장애의 문제를 근대의 시선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그 해결 또한 철저히 근대적인 방법으로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장애에 관한 사회적 시선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적 타자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시대부터 이들이 겪어온 사회적 고뇌와 고통, 갈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대 장애인을 다룬, 혹은 전통시대 장애인 스스로가 지은 문학작품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깊은 울림을 전해 준다.

참고문헌

『고려사』

『세종실록』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김달진, 『한국한시 2 - 조선중기~근대』, 민음사, 1991.

나정희, 「중세 한국인 장애인 정책 연구 - 고려시대 폐질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6 -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임형택·고미숙 엮음,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 비평사, 1997.

정근식,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문화비판으로서의 장애의 사회사」, 『당
대비평』 14, 당대, 2001.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연구』, 일지사, 2003.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_____, 「조선조 시각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19세기 조선의 생활문화』,
돌베개, 200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KBS TV 조선왕조실록 제작팀 지음, 『조선은 양반의 나라가 아니오』, 가람기획,
2001.

어빙 고프만, 김용환 옮김, 『오점』,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